

AUTHOR 박병식

TITLE 칼빈의 겸손

IN 고려신학교복교20주년 논문집
(Sept., 1996): 483-495

28. 레마, 사도행전,
임마누엘(서울, 1991)
29. The Preacher's Outline & Sermon Bible, The Acts of the Apostles",
포도원(서울, 1994)
30. 강 문석 지음, "사도행전 강해",
성광 문화사(서울, 1984)
31. 감 경행 저, "신약 강해설교 대사전",
성서 연구사(서울, 1986)
32. 김 철손 저, (해설 사도행적
"대한기독교 출판사"(서울, 1986)
33. 박 윤선 저, "신약 주석, 사도행전",
영은사(서울, 1961)
34. 방 관덕 저, "주해설교, 사도행전",
한국기독교 교육연구원(서울, 1985)
35. 석 원태 저, "사도행전 강해",
도서출판 경향문화사(서울, 1989)
36. 신 성종 저, "사도행전"
도서출판 엠마오(서울, 1985)
37. 이 순환 저, "사도행전 강해",
한국기독교 교육연구원(서울, 1993)
38. 장 성규 지음, "사도행전 주해"
보이스사(서울, 1991)

칼빈의 겸손

박 병 식*

어거스틴은 말한 바 있다. "만일 당신이 내게 기독교적인 삶에 대하여 묻는다면, 나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참으로 겸손할 때, 그리스도인의 다른 모든 삶이 아름다워진다. 이런 의미에서 겸손은 우리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 동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칼빈은 성경 앞에서 겸손의 모습을 보였다. 그는 그가 무엇을 본래적으로 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는 그대로 설명하려는 겸손을 가졌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성경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교리요 그 스스로 교리를 아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칼빈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일을 그의 신학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하나님을 알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 대하여 참으로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겸손하지 않을 수 없다. 겸손이란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사람이 갖는 삶의 모습이고, 태도이다.

인간이 언제 교만하게 되는가? 먼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한 창조 능력들을 망각할 때 교만하게 된다. 역시 인간의 연약함과 무의미함을 망각할 때, 인간은 교만하게 된다. 우리 인간은 무가치한 존재이다. 우리는 흙에서 났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 목사, 송파제일교회 담임

Jacob T. Hoogstra가 편집한 「John Calvin Contemporary Prophet」중에서 Pierre Marcel의 「The Humility of the Prophet」을 박병식 목사가 축소 번역하였다.

존재이다.

하나님은 거룩함 속에서 계시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의로우심 속에서 계시된다. 하나님과 같은 거룩함이나 의로움은 지상의 누구에게서든 어떤 피조물에게서든 발견될 수 없다. 하나님의 이런 거룩함이나 의로움을 우리의 마음에서 생각 되는대로 감상적으로 설명해서는 안된다. 성경이 설명하는대로 우리는 겸손히 받아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라도 거룩하다고 주장할 수도 없고 인정될 수도 없다. 아담의 타락 이후 우리의 처지는 비참하게 되었다. 우리는 근원에서부터 망하게 되었으며, 본 창조의 목적에서 멀리 떠나있게 되었다. 칼빈은 욥 25:5을 본문으로 한 설교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헤아려 알 수 없는 영광 앞에서 무익한 자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반역하며, 무례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은 불경건하다. 고전 14:25의 주석에서 칼빈은, “하나님을 알지 않고서는 그 무엇도 육체의 교만을 쳐부술 수 없는 이유가 이것이라”고 말하였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 인간의 비참함을 어느 정도는 직관적으로 동시에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성경만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며 우리의 도덕적 연약함과 불의함을 밝혀 드러낸다. 우리의 타락하고 왜곡된 성품은 하나님의 의와는 전적으로 반대된다. 우리는 불의하고 불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다(Inst., I, vi, 1). 공정한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여 우리의 전 생애를 엄격히 살펴보아야 한다. 가장 비밀스러운 마음의 생각이 드러날 것이다. 완전히 잊혀졌던 감추어진 생각들도 우리의 양심에 떠올라올 것이다. 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사소한 죄들까지라도 발견한 후 우리는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참된 거룩 사이에 엄청난 간격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오만함, 뻔뻔스러움, 위선 등이 비로소 우리 속에서 무너져 내릴 것이다.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게 한다. 손쉽게 세상적 표준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면, 맹목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적 표준은 아무 힘이 없으며 정당하지도 않다. 욥기 5:8의 설교에서 칼빈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대답할 때까지는 우리는 결코 참 겸손을 알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의 법정에 불려가 그 앞에 서면 그가 우리의 심판장이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그의 손에서 빠져 나갈 수 없다. 그리고 우리 전 일생이 조사를 받고 드러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고 하였다. 칼빈은 반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 그대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장난삼아 하는 말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강요 III, xii, 1, 4에서 칼빈은 말하기를, “의의 완전함이 인식되지 않을 때, 그의 가 터무니없이 조소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게 된다. 참되고 표준적인 의에 따라 인간의 행위가 위엄있게 심판을 받는다면 그 모든 행위들은 더럽고 추악할 뿐이다. 일반인이 생각하는 의란 하나님 앞에서 아주 불의할 뿐이다. 불의는 곧 인간의 타락이다. 인간이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곧 부끄러울 것 뿐이다”고 하였다. 칼빈은 단 4:37 주석에서 우리의 부끄러움이 드러나지 않고 우리의 교만이 산산조각으로 깨어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부끄러움에 쌓여 먼지에 묻히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찬양하지 못하며 참되게 높일 수 없다고 말하였다. 우리의 가난함을 철저히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 인식하였을 때, 우리 자신이 아무 것도 아닌 것임을 알고 부끄러워 엎드려야 할 것이다. 우리가 자신에게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은 우리에게 아무 것도 없다.

강요 III, xii, 4은 말한다. 겸손이란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불가피하게 강압적으로 투쟁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는 겸손이 아니라 굴종이 될 것이다. 참된 겸손은 능동적이다. 참 겸손은 인간의 내면으로부터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참 겸손은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며, 자유로운 마음으로 진지하게 원하며 동의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공의로우심을 계시하셨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알아보아야 한다. 강요 III, xii, 1은 말한다. 하나님은 누구와도 비길 수 없는 권세를 갖고 그의 심판석에 앉아 계신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그 천성의 심판자 앞으로 나가야 한다. 각 사람은 그 앞에 꿇어 엎드려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려 오셨다. 그때 마치 우리의 전 생애가 완전히 드러난 것처럼 우리는 그 앞에 전심으로 엎드려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

피신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는 일을 시작하여야 한다. 자신에게 돌리는 모든 영광을 완전히 버리기 위하여 자원하여 우리는 완전한 겸손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한다(강요 II, vii, 1). 사람이 스스로 자신 위에 드리워진 모든 영광을 완전히 벗어내야만 하나님께서 참되게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 칼빈이 반복해서 한 말은 『자신을 아는 사람이 자신을 과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를 범하는 중대한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즉각 겸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한다.

이 면에서 두 가지 점을 천명하고자 한다. 이 연약함과 이 죄는 우리의 이웃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직접 관계된 우리 자신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세리의 비유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춘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로 평안을 얻지 못함을 보여준다. 우리 중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다른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로 감소되는 것이 아니다. 한 사람의 성품은 다른 사람의 성품에 의해 달라지지 않는다. 둘째 칼빈주의자는 비판적이며 불신에 찬 비평가가 아니다. 그는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불신임하고 정죄하는 자가 아니다. 반대로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하고 사랑한다. 세상의 누구보다 자신에 대하여 잘 알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정죄한다. 남을 비판하는 일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만 속한 것임을 그는 안다.

스스로 겸손할 줄 아는 것은 자기를 확대하는 일이나 혹은 병적인 성품과는 다르다. 이런 성품은 다른 사람 앞에서 고질적으로 열등감을 갖게 한다. 겸손이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의식을 포기하게 하는 것도 아니다. 겸손은 절망같은 것도 아니다. 겸손은 겸손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겸손은 은혜에 이르는 좁은 길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율 7장 설교). 겸손은 또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이르게 하는 길이다(신 7:5-8 설교). 인간의 겸손과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분리적인 관계에 있다. 어거스틴은, “여러분 스스로가 연약함을 느낄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기꺼이 영접하실 것입니다”고 말하였다.

우리는 항상 겸손한 가운데서 낙담과 절망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여야 한다. 겸손하기를 원하는 사람 앞에 사탄은 덫을 쳐 놓는다. 그리하여 우리의

구원에 필수적인 겸손이 우리에게 독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누구나 교만한 사탄은 승리의 쾌재를 부른다. 누구든지 겸손하려고 하면 사탄은 우리를 패배시키기 위하여 가장 가까이 근접한다. 사탄은 겸손하려는 사람 속에 절망감을 주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게 하고 그의 은총을 잊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그러나 참 겸손은 오히려 소망가운데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기 때문에 지나친 겸손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Inst., III, iii, 15).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치료하실 수 있으심을 알고 있는 한 우리의 겸손에는 한계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Inst., II, ii, 10).

겸손이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한 면이다. 하나님이 완전히 받으실 만한 헌신이다(율 31 설교). 그러므로 전적으로 겸손해야 한다. 외적인 표현으로 머리를 깊이 숙이므로 참 겸손을 흉내낼 수는 없다. 겸손이란 불필요하게 자기를 비하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더구나 자신이 매우 경건한 사람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꺾꽂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다. 칼빈은 말한다. 조금이라도 이런 허영이 남아 있다면 나는 이를 겸손이라고 부를 수 없다(Inst., III, xii, 6). 겸손이란 꾸밈이 없이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 것이며, 아무런 가식이 없이 철저히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다. 우리 자신의 비참함과 가난함을 가슴깊이 인식할 때 비로소 우리는 겸손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절반쯤 겸손하여 자신을 부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절반쯤만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공유할 수는 없다. 우리는 확실하게 우리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여겨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수록 겸손까지라도 그 기원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는 자신 속에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다. 겸손이 있다면 이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을 뿐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깊이 살피면 인간성 속에 섞여 아직도 남아있는 자신의 죄를 발견한다. 이 면에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에게 모든 소망을 걸 뿐이다(Inst., III, xii, 3).

실제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우리는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남아 없어질 것들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동전 한 닢도 벌어드릴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얻을 수 있는가?(신 9:1-8 설교). 가장 바르게 우리 안에 겸손을 갖게 하고 유지케 하는 교리는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선택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거둬내게 하시었다. 거둬내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다. 거둬낸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형성시켜 주시었다. 이런 개혁이 있을 후에 비로소 우리 안에서 선행한 것이 나올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선행은 사실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다. 이런 원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감소시키고 참 겸손을 역시 감소시킨다. 이런 원리를 모르면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지 못하게 된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고백하지 못한다면 참으로 하나님께 겸손할 줄을 모르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도 바로 인식할 수 없게 된다.

겸손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나갈 수 있으며 그를 영접할 수 있다. 그리스도는 그의 고귀한 피를 통하여 겸손의 본질을 확정지으셨다. 우리는 비참하고 무가치한 죄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졌다. 우리가 안식하는 주의 날을 지킬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업적을 다 잊어버리고 대신에 주님의 놀라운 사역에 대하여 즐거워 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었다(요 15:4-5). 우리가 그와 연합될 때, 포도나무와 같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우리가 한 선행에 대하여 우리에게 돌려야 할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다음의 방법에 의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참된 존귀를 드릴 수 있다. 그의 은혜로 그가 우리를 그에게 가치있는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먼저 우리 자신을 비천한 자로 그에게 드리는 일이다. 그가 우리를 위로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에게 절망하는 일이다. 그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고 자신으로 죽은 우리가 그 안에서 살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비난하는 일이다. 우리는 자신을 베푸는 사람에게 나가는 거지같이, 의사에게 나가는 환자와 같이, 법을 집행하는 자들에게 나가는 죄인과 같이,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나가는 시체와 같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한다"(Inst., IV, xvi, 42).

자랑으로 여기기 보다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 눈에서 베일을 벗겨내고 우리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보다 신중하게 깨닫게 해 준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우리로 우리 자신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심층에서부터 찾게 해주심을 알게 되었다(신 7:5-8 설교). 사함받은 죄인만이 죄와 독성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그만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리고 참되게 자신을 이해하게 된다. 가난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부할 때 역시 그에게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것이다.

은혜는 우리의 것이다. 그러나 은혜가 결코 우리가 될 수는 없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심으로 주신 은혜와 우리 자신을 구분해야만 한다. 우리 자신을 한 편에 놓고 하나님을 다른 한 편에 놓고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만 한다. "은혜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는 그것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나는 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욥 7:8 설교). 죄 이외에는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선하심에 대한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받을 수는 없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이를 돌려야 한다. 이 은혜는 우리로 경외심을 갖게 하고 우리로 전적으로 그에게 의지하며 그의 권능 앞에 우리 자신을 앞드리게 한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중 『기도에 관한 논문』에서 뜨겁게 강조하기를 하나님을 의지함이 기도를 통해 항상 표현된다고 하였다.

성경과 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고 신비적 연합을 통하여 그와 교통하므로 우리의 겸손은 더욱 완전해진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잊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을 생각해야 한다. 우리의 영혼의 감추어진 죄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자신을 버리고 우리 자신의 쾌락에는 관심도 두지 않는 일이다. 우리의 지성과 감정을 기울여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바를 찾고 그의 이름에 영광 올려 드리기를 소원하여야 한다. 칼빈은 이를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말로 요약하였다(Inst., III, vii, 1). 칼빈은 이를, "나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고 달리 말하였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그의 기능과 힘을 다 기울이기 위하여 사람이 자신의 뜻을 버릴 때, 그는 역시 자신의 이성이나, 판단이나, 지혜나, 지성이나, 감정까지도 버려야 한다. 칼빈은 이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만 아니라, 자신의 판단을 비운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의 지시에 순복하는 것도 나는 이를 예배라고 부른다(Inst., III, vii, 1). 이 태도는 철학자들에게서는 무시를 당한다. 기독교 철학은 이성을 성령님께 양보하기를 요구한다. 그리하여 사람이 스스로 살지 않고 살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겸손은 모든 참된 지성의 시작이다(겔 1:13 주석).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다스리시게 하는 것은 성경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칼빈이 겸손의 영이라고 부른(마 20:24 주석)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지적으로 다스리시는 일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 겸손할 수 없다"(함 1:16). 교만은 결과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넘을 수 없는 장벽이 된다. 교만한 사람은 인간의 이성과 맞지 않는 계시를 거절한다. 계시의 실재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는 순전히 어리석게 보여진다. 그러나 그들 자신의 어리석음을 지혜롭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거역은 우둔에 이르게 한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신비를 알아볼 만한 능력이 없는 것이 마치 당나귀가 악보를 알아볼 수 없는 것과 같다. 모든 것이 그 영을 어둡게 하고 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Inst., II, ii, 21). 그러나 산 체 혐의로 칼빈과 그의 제자들은 성경의 장엄함과 지혜와 능력에 압도되어 끊임없이 성령님께 하나님의 말씀의 그 광대함을 보여주시기를 간구하였다(신 5:22 주석).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신중하게 대하여야 한다. 하나님을 장난하듯이 대해서는 안된다. 그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그리고 그의 뜻대로 조종해 가는 양태와 같이 그가 우리를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그에게 완전히 굴복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말씀에 완전히 계시되었음을 확신하고 칼빈은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배운다는 원리를 세웠다. 누구든 호기심이 아닌 순종하는 마음으로, 약삭빠른 마음이 아

닌 온건함으로, 부주의함이 아닌 신중함으로 성경을 대하여야 한다.

우리가 성경에 복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이유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되었고 그리스도는 성경에 의하여 우리에게 계시되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지식의 한계는 정해져 있다. "우리는 그의 말씀 밖에서 하나님을 찾아서는 안되며,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해서도 안되며, 성경에서 인용되지 않는 그 어느 것에 대하여도 말해서는 안된다"(Inst., I, xvii, 21). 아담은 지식면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만족하지 못하였다. 그는 보다 더 풍족한 어떤 지식에 의하여 보다 더한 완전을 추구하였다. 하나님의 참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그릇된 말을 믿으므로 그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어로 사탄을 진리로 만들어 버렸다. 원죄로 상처를 받아 비참한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이며 한다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을 도대체 어떤 선생이나 박사가 가르치려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왜 지금보다 더 일찍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을까 이상히 여기며 알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셨는가를 탐구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는다. 사람이 그렇게 높이 오르려고 시도하면 수백번이라도 실패할 것이다"(Inst., I, xiv, 1).

천사 창조, 천사의 수, 우두머리, 그 기능 등에 대하여 알고 싶어 하는가? 이에 대한 완전한 계시가 마지막 때까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은 미궁에 빠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호기심을 자제하고 알 수 없는 것들을 발견해 보려고 시도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뻔뻔스러운 일인가를 알아야 한다(Inst., I, Xiv, 8).

사탄이 왜, 어떻게, 언제 타락하였는가를 성경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가? 이 문제들이 우리에게는 작고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말하지 않거나 혹은 가볍게 다루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터무니없고 소득이 없는 이야기들을 만들어 내어 사람의 호기심을 채우려고 하는 일은 성령님과 맞지 않다(Inst., I, xiv, 16).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의 비밀에 대하여 우리는 온건하고 신중해야 한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정한 범위보다 더 나

아가 말하지 않으려고 조심하여야 한다(Inst., I, xiii, 21).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무조건 순복하여야 하지만 그에 덧붙여 역시 절제하여야 한다. 먼저 절제하는 학문에서 만족할 줄 모르는 지식의 욕구를 질식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을 더 잘 알고자 한다는 것을 핑계삼아 다른 학문에 몰두하고 성경 연구를 하지 않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성경 연구에 우리는 일생을 투자하여야 한다. 성경 연구에서는 『이만하면 되었다』는 말은 있을 수 없다. 칼빈은 백과사전과 같이 모든 것들을 많이 아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았다. 이런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는 전연 상관도 없는 것들을 알려고 쉬임없이 나댄다. 필요한 것은 과다한 지식이 아니라 절제하는 일이다. 신 12:29-32 설교에서 칼빈은 이를 아주 강조하고 있다.

학문의 절제에다가 우리는 이성의 절제와 지식에서의 기교의 절제를 덧붙여야 한다. 인성의 한계는 좁다. 우리의 능력도 매우 보잘 것 없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인식하여야 한다. 칼빈은 애매모호한 문제를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추론을 삼갔고, 모든 형이상학적인 문제에 대하여 정의를 쉽게 내리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하게 절제하므로 그 지식이 철학자들이나 학자들, 혹은 교파주의자나 이단자의 지식과 달랐다. 하나님과 그의 본질, 그의 계획과 그의 은밀한 일들은 우리에게서 다 이해될 수 없다. 성경보다 더 나가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이는 하나님을 우리의 지식에다가 굴복시키려는 것이요, 그를 우리의 이성의 한계와 범주에 가두어두려는 일이요, 그에게서 초월성을 제거하려는 불경이다.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에 가두어 놓고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게 할 수 있는가(신 4:11-14 설교)? 그가 말하는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실 수가 없을 것이다. 신비는 신앙생활의 한 면이다. 신비가 사라질 때, 아무리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 해도 신앙 생활에는 이성 이외에 남는 것이 없을 것이다. 이는 신적인 생각을 하나의 개념으로만 이해하고 영원을 시간에 매어 놓는 것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삼위일체론은 한 신비로 남아 있어야 한다. 성 힐레어(St. Hilaire)는 이면에서 말하였다. "하나님 자신을 아는 특권은 하나님에게만

있다. 이는 그만이 자신을 정당하게 판단하시며 자신을 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대로 그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그의 말씀을 통해서만 그를 알고자 한다면, 그에게 속한 것을 그에게 맡겨드려야 한다(Inst., I, xiii, 21). 우리가 알고자 하는 바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무지 속에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여야 한다(욥기 설교 147번). 마음으로 복종하고 지식으로 절제하는 것은 모든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아름다운 지적 겸손의 열매이다. 그러나 어려운 시험이나 고난을 하나님의 계획이나 비밀하신 섭리들과 연결지어 생각하려고 하면 우리의 감정은 흐트러지고 어느 때보다 무모해지려는 경향에 대하여 주의하여야 한다. 심령의 동요가 없이 믿음으로 이런 시험이나 고난을 수용하려고 하면 더욱 완전한 겸손의 사람이 되게 한다.

하나님의 섭리는 특별한 경우이다. 하나님의 섭리는 개인 생활이나 혹은 가정 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서 그리고 세계 역사에서 작용한다. 그가 세계를 다스리시는 찬양받을 만한 그 모습을 하나의 섭연이라고 불려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서 감추어져 있을 때, 우리는 이를 경외심으로 찬양해야 하기 때문이다(Inst., I, xvii, 2).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인내심을 갖고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원인을 다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원망하지 않아야 한다. 오히려 잘못이 자신에게 있었다고 인식하여야 한다(욥 5:8 설교).

우리가 서로 인간임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적인 조건으로 국한할 수 없으리만큼 더 높고 뛰어나며, 인간의 편협한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가 이해하는 조건에 이를 맞추려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된다.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이해하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지혜로운 일이다. 무조건 이해하려고 하는 과욕은 아주 그릇된 경향을 펼 수도 있는 것이다.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하나님은 동시에 한 부분을 감추기도 하신다. 감추어진 이 휘장을 찢어내려고 해서는 안된다.

칼빈은 겸손에 대하여 실제적인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린다. “참으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 대하여 아무 것도 주장할 것이 없는 것으로 안다. 그는 다른 동료들 경멸하며 멸시하지 않는다. 그는 다른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는 그리스도의 몸의 여러 지체들 중의 하나이므로 만족한다. 그는 오직 구주께서만 찬양받으시기를 구한다. 겸손만이 우리를 향상시켜 주며 우리를 고상하게 해 준다”(마 18:4 주석).

성경에 명한대로 그리고 자신이 이를 가르친대로 자신의 삶을 통하여 칼빈이 겸손을 실천하였는가? 칼빈에 대한 여러 전기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분명하게 답한다. 칼빈의 일생의 대 야망은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림이었다. 칼빈의 연구자들은 칼빈이 이 열망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고, 그를 복종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끊임없이 그가 느끼고 있었다고 말한다. 칼빈은 자신을 자신과 더불어 싸우는 무사로 묘사하기도 하였다. 그의 연약함과 대항하여 투쟁하고, 간교한 교만과 대항하여 투쟁하며 그의 참지 못하는 성격과 대항하여 투쟁하는 무사로 자신을 생각하였다. 그는 반복해서 말하곤 하였다. “우리는 성령의 겸에 의하여 죽임을 당해야 한다. 그리고 강압적으로라도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낮추어져야 한다”(Inst., III, iii, 8). 그는 부서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나의 노력이라는 것도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나는 아직도 야수와 같은 내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탄식하였다.

칼빈은 그 자신의 비참함을 보고 탄식하며 우는 생애를 보냈다.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에 감격하여 승리에 찬 찬송을 부르는 생애를 보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남긴 최후의 말은 그의 전 생애를 통하여 그가 얼마나 자기 자신과 더불어 투쟁해 왔는가를 잘 보여준다. 그의 최후의 말 속에는 그의 겸손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에 대한 흔들림 없는 그의 확신이 담겨져 있다. “그는 나를 공홀히 여겨 주셨습니다. 나는 가련한 인간이었습니다. 내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을 때, 그는 나를 끌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그의 복음의 빛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격이 전혀 없는 나를 구원의 도리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수천번이라도 나를 거절하실 만한 수많은 죄가 내게 있음에도 그는 나를 견고히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는 내게 은총을 베푸사 나로 복음의 진리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슬픔입니다. 내게 주신 소명이 분명함에도 내가 가진 소원과 열의는 너무나 차고 무기력하여 모든면에서 죄송함을 느낍니다. 그의 무한한 선하심이 아니었다면 내가 받은 모든 복은 한낱 연기로 화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총이 나로 더욱 죄책감을 느끼게 합니다. 나와 같은 비참한 죄인에게라도 함께 하시며 자신을 아버지로 내게 보여주시는 자비의 아버지안에 나의 피난처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그는 말하였다. “여러분은 나의 많은 부족함을 참아오셔야만 했습니다. 내가 한 모든 일들이 다 별 가치가 없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내가 한 이 말을 악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말을 반복합니다. 내가 한 모든 일들이 다 별 가치가 없습니다. 나는 가련한 인간입니다. 내게 항상 선한 의도가 있었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부패성이 항상 나를 괴롭혀 왔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내 마음에 있었습니다. 나의 소원들이 선했음을 여러분이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죄들이 사함받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만일 내게 어떤 선함이 있었다면 여러분들도 이에 일치하여 따라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일생은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기 위한 한 제물이었다. “사람의 목적은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려는 것이다”(마 20:28 주석).

그는 겸손하게 사는 삶을 배워왔듯이 겸손하게 죽었다. 그가 영광의 부활을 기다리는 동안 그의 무덤을 무명으로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우리는 겸손하게 살고 겸손하게 죽기를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창 11:4 주석).